

형태소 '-오, -ㄴ'과 안맺음씨끝의 호응

송 상 조*

目 次

1. 들어가기
2. 안맺음씨끝의 종류와 분포
3. '-오, -ㄴ'과 안맺음씨끝의 쓰임과 호응 양상
4. 맺음말

1. 들어가기

필자는 제주 방언에서 몇 개의 씨끝에만 결합하여 나타나는 '-오, -ㄴ'이 시상¹⁾의 대립을 이루며, 이음씨끝(연결어미)이나, 안맺음씨끝(선어말어미), 두자격법 씨끝(전성어미), 맺음씨끝(종결어미)들과 호응하며 쓰이는 독특한 형태소로 보고, 두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²⁾. 이러한 현상은 방언만이 가진 특징이지만, 국어 문법에서도 어떤 관련이 있거나 없을까 하는 기대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두 편의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 -ㄴ'이 결합되는 씨끝은 '-어, -어나, -다, -어다, -저'였다. 이러한 씨끝에 '-오, -ㄴ'이 결합하는 현상도 독특하지만, 이들이 규칙적으로 '-오, -ㄴ'을 선택하여 뒤에 오는 다른 씨끝들과 호응하는 현상은 특이한 바가 있다. 그 결과로 이음씨끝들이 가진 시상의 뜻도 아

*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시제, 상, 서법 따위를 통합한 개념으로 썼다.

2) 필자, "제주도 방언 '-오, -ㄴ' 형태소에 관한 고찰", 《동아 어문논집》 제 2호, 동아어문학회, 1992.

——, "형태소 '-오, -ㄴ'과 이음씨끝의 호응", 《한뫼》 제 6집, 제주도 증등국어교육 연구회, 1993-1, p. 228.

올려 밝힐 수 있었다고 본다.

앞선 발표에서는 이미 '-오, -ㄴ'이 이음씨끝들과의 호응에서는 호응하는 풀이씨의 줄기와 씨끝(연결어미) 사이에 어떤 안맺음씨끝(선어말어미)이 있든 없는 관계 없이 맨 뒤에 오는 이음씨끝과만 호응하는 점과, 그 결과 씨끝들이 가진 시상으로의 뜻을 밝혔다. 그것은 '-오, -ㄴ'이 사건시와 발화시의 측면에서, '-오'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거나 같고,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거나 같은 뜻을 지닌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에 호응하는 이음씨끝에도 이러한 뜻이 있어서 서로 호응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오, -ㄴ'은 이음씨끝과도 호응하지만, 맺음법(종결법)에서나, 일부 보문(인용법포함)에서도 호응한다. 여기에서는 맺음법에 쓰인 안맺음씨끝과 '-오, -ㄴ'의 호응 현상을 다룬다. 맺음법에서는 '-오, -ㄴ'과 뒤에 오는 풀이말의 줄기와 맺음씨끝 사이에는 많은 형태소들(안맺음씨끝들)이 더 결합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오, -ㄴ'이 어느 형태소와 호응하는 지, 또는 형태소들의 통합에 의한 뜻에 호응되는 지를 밝히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오, -ㄴ'은 이음씨끝과 호응에서도 몇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안맺음씨끝(문장 종결)에서도 몇가지 제약이 있다.

첫째는 움직씨 줄기에 '-아, -어나, -다, -어다, -저'에 '-오, -ㄴ'이 결합되고, 그 뒤에 오는 풀이말도 움직씨어야 한다.

둘째는 복합문을 구성하고, 순차적 접속 관계를 이루고, 동일 주어이어야 한다. 주로 주어는 [+Animate] 자질이어야 한다.

그러면, '-오, -ㄴ'은 발화시와 사건시에 관련하여 줄기(어간)에서 맺음씨끝 사이에 있는 어느 안맺음씨끝이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형태소가 있어 이것과 호응하는 것으로 가정해 둔다.

그런데, 줄기(어간)와 맺음씨끝 사이에는 여러 유형의 안맺음씨끝이 쓰인다. '높임(주체이든 상대이든)'은 시상과 관계가 없으므로 '-오, -ㄴ'과 호응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들과 관계가 있는 것은 이른바 시상 안맺음씨끝이거나, 서법의 맺음씨끝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오, -ㄴ'이 시상 대립을 이루므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시상 안맺음씨끝들을 보면, 모두가 사건시와 발화시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맺음씨끝(종결어미)은 사건시나 발화시와 관련이 있는 지는 분명치 않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시상의 안맺음씨끝에 관심을 둔다. 그런데, 안맺음씨끝은 방언에서는 줄기에 가까이 결합된 동작상 '-암-, -앗-' 따위가 있고, 그 뒤에 '-더-, -(으)크-' 따위의 형태소가 있다. 이들은 일정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³⁾. '-더-, -(으)크-' 따위와 이 자리에 오는 서법의 안맺음씨끝이 '-오, -ㄴ'과 호용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가정하여 둔다. 그것은 '-더-'에는 늘 '-ㄴ'이, '-(으)크-'에는 '-오'이 호용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밝히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현상이 밝혀지면, '-오, -ㄴ'이 가지는 특성도 이음씨끝에서 밝힌 바와 함께 어느 정도 온전하게 밝혀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람되게 국어에서 논란이 많은 시제나 서법, 상의 범주를 파악하는데도 어느 정도 방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갖는다. 여기에서는 주로 시상이나, 서법의 안맺음씨끝과 '-오, -ㄴ'의 호용을 다루면서 아울러 형태소 통합에 따른 뜻도 살피게 된다. 그리고, 방언의 현상들을 체계화한다기보다는 현상 그대로를 충실하게 나타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 글에서는 주로 현평효(1974, 1975)의 안맺음씨끝의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안맺음씨끝을 동작상과 서법으로 나누어 고찰한다⁴⁾.

2. 안맺음씨끝의 종류와 분포

안맺음씨끝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높임(주체, 상대), 겸양, 시상(동작상이나 서법), 다짐 따위가 있다. 이들은 줄기와 씨끝(이음씨끝이든 맺음씨끝이든) 사이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여 서로 결합해서 풀이말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이다⁵⁾. 이들의 결합은 걸으로는 모든 씨끝에 모두 결합되는 것이 아니고, 씨끝의 유형(이음씨끝의 특성이나, 서법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선택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변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3) 고영근,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9, p. 228.

4) 서법은 '-더-, -(으)크-' 따위를 가리키고, 맺음씨끝으로 된 서법 씨끝은 맺음씨끝으로 나타낸다.

5) 고영근, 앞 책, 1989, p. 144.에서는 선어말어미는 분포가 넓은 것('는, 었, 겠'과 '-(으)시-, -옵-')과 좁은 것('-(으)ㅁ-, -느-, -더-, -리-')이 있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ㅇ, -ㄴ’과 호응하는 형태소를 찾는 것은 복잡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ㅇ, -ㄴ’과의 호응에서 중점적으로 고찰되는 것은 시상을 나타내는 안맺음씨끝(서법 포함)들이다. 안맺음씨끝의 쓰임을 간단히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방언에서 안맺음씨끝들의 쓰임은, 앞에서 지적처럼 높임이나 겸양의 안맺음씨끝이나, 다짐의 안맺음씨끝들은 ‘-ㅇ, -ㄴ’과 호응에는 관계 없이 자유로이 쓰일 수 있다.

주체 높임의 안맺음씨끝 ‘-시’는 표준어에서는 이음씨끝이나, 맺음씨끝 앞에서 거의 제약 없이 쓰일 수 있지만, 방언에서는 주체 높임의 형태 ‘-시’는 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⁶⁾ 이음씨끝이나 맺음씨끝에서는 결합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시’를 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좀은 어색한 일면도 있다. 그러나, 상대 높임의 안맺음씨끝은 표준어나 방언에서 이음씨끝에는 결합되는 일이 없지만, 맺음법(종결법) 합쇼체나, 흡서체⁷⁾에서는 이 씨끝이 제약없이 결합되는 점은 같다. 그리고, 겸양의 안맺음씨끝은 현대어에선 상대 높임으로 변천되었으므로 형태론적으로는 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⁸⁾. 그런데, 시상을 나타내는 안맺음 씨끝들은 종류도 많지만, 제한적으로 결합되는 점이 다른 안맺음씨끝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상의 안맺음씨끝의 분포는 이음씨끝의 앞이나 맺음씨끝의 앞에도 그 특성에 따라 올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의 안맺음씨끝이 겹쳐 쓰일 수도 있다. 그런데, 표준어에서는 시킴, 꺾임법에는 어떤 시상의 안맺음씨끝도 결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언에선 이들에게도 동작상으로 지칭되는 ‘-암시-, -아시’가 결합되어 쓰인다⁹⁾. 이러한 현상은 방언의 시상 체계만이 가진 독특한 것이다. 그

6) ‘-(으)시-가 잘 안 쓰이는 것은 동작상 씨끝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다.

7) 현평효, 《제주도 방언 정동사 어미연구》, 1974, 에서 ‘ㅎ라체, ‘ㅎ계체, ‘흡서체로 3등급으로 나누었다.

8) 허용, 《중세 국어 연구》, 정음사, 1963, p. 67.

고영근,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9, p. 161,에서는 ‘하오리다’의 ‘-오-’가 ‘-ㅁ-’의 변이형태로 보고 있다.

9) 현평효, 앞 책.

리고, 시상의 형태소가 선택되는 것은 이음씨끝이나, 맺음씨끝이 가지는 특성에 의한 것이고¹⁰⁾, 그에 따라서 '-오, -ㄴ'과 호응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표준어에서도 시상의 안맺음씨끝은 다양한 형태와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루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드러난다. '-았-, -더-, -겠-' 따위를 시제로 다루기도 하고, 시상으로 다루기도 한다¹¹⁾. 또한 시제, 상, 양태를 각각 분리해서 보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통합적으로 보려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안맺음씨끝이 여러 개가 겹쳐 쓰일 때는 그 놓이는 자리가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줄기에 가까이 놓인 것은 시제로, 뒤에 놓인 것은 상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용어도 다양하게 쓰인다¹²⁾.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것들을 시제나 상으로 다루든, 그렇지 않은 '-오, -ㄴ'과 호응을 밝히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둔다.

시상의 안맺음씨끝들도 많지만, '-오, -ㄴ'과의 호응은 앞에서의 가정처럼 모든 시상의 안맺음씨끝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의 자리에 놓여 문법의 어떤 범주에 드는 형태소와 호응된다고 가정해 둔다¹³⁾. 특히 '-더-, -(으)크-'의 자리를 지목한다. 만일, 같은 서법의 범주에 드는 형태소가 겹쳐져 쓰였을 때는 자리에 따라 호응하는 것으로 본다. 즉, 그 가운데 앞에 놓이는 것과 호응한다. 예를 들면, '-크라'에서는 '-오'와 '-크'만, '-더+ㄴ+가'에서는 '-ㄴ'에 '-더'가 호응하는 따위이다.

방언에서 시상의 안맺음 씨끝들이 놓이는 순서를 보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 10) 고영근, 앞 책, p.144.에서는 연결 및 전성어미는 선어말어미 및 어말어미의 표시 내용이 독자적 요소에 의지한다고 한다.
- 11) 국어의 시간 관련 형태소는 '-더-, -느-, -았-, -겠-' 따위들인데, 이들에 대한 기능 범주를 파악하는 관점은 다양한 편이다. '-더-, -느-': 시제, 상, 양태, 서법, '-았-': 시제, 상, '-겠-': 시제, 양태 따위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 12) 송영주, 《발화의 시간 의미 연구》, 한신문화사, 1991, p. 4.
- 13) 형태소의 차례가 같으면 그대로 뭉쳐서 하나의 범주를 형성하고, 차례가 다르면 문법 범주가 달라진다. (E. Nida, 고영근, 1989 : 238에서 재인용)
고영근, 앞 책, p.239, 선어말 어미의 차례의 선후는 해당 형태소의 분포상의 제약의 과다나 생산성의 여하에 정비례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 동작상 씨끝의 형태 분석 및 놓이는 차례

어 간	1	2	3	4	5	6	7	8	9	어 미	용 려
먹		어	ㅁ	ㅅ						저	먹엄저
먹		어	ㅁ	ㅅ			ㄴ			어	먹엄서
먹		어	ㅁ	ㅅ			ㄴ			계	먹엄신계
먹		어	ㅁ	ㅅ			(ㄴ)			에	먹엄시네
먹		어	ㅁ	ㅅ			(ㄴ)			어	먹엄시키어
먹		어	ㅁ	ㅅ				이		메	먹엄시크메
먹		어	ㅁ	ㅅ				크		젠	먹엄젠
먹		어	ㅁ	ㅅ						저	먹엇저
먹		어	ㅁ	ㅅ						어	먹어서
먹		어	ㅁ	ㅅ			ㄴ			계	먹어신계
먹		어	ㅁ	ㅅ		더	ㄴ			라	먹엇더라
먹		어	ㅁ	ㅅ		어	(ㄴ)			에(이)	먹어시네
먹		어	ㅁ	ㅅ				ㅣ		어	먹어시키어
먹		어	ㅁ	ㅅ				ㅣ		젠	먹엇젠
먹		어	ㅁ	ㅅ						저	먹어낫저
먹		어	ㅁ	ㅅ						어	먹어나서
먹		어	ㅁ	ㅅ			ㄴ			에(이)	먹어나시네
먹		어	ㅁ	ㅅ		어	ㄴ			라	먹어나서라
먹		어	ㅁ	ㅅ		어	ㄴ			에 ¹⁴⁾	먹어나서네
먹		어	ㅁ	ㅅ		어	ㄴ			고	먹어나서고

나) 서법 씨끝의 형태 분석 및 놓이는 차례

어 간	1	2	3	4	5	6	7	8	9	어 미	용 려
먹						ㄴ/ㄴ				다	먹는다
먹						ㄴ	ㄴ	이		ㅅ	먹느니
먹						ㄴ	ㄴ	이		아	먹나
먹						ㄴ	ㄴ	이		아	먹느냐
먹						ㄴ	ㄴ	이		고	먹는고
먹						더	ㄴ	이		라	먹더라
먹						어	ㄴ	이		에(아)	먹어네
먹						어	ㄴ	이		아	먹더나
먹						어	ㄴ	이		아	먹어나
먹						겟	ㄴ	이		순	먹겟순
먹							ㄴ	키		어	먹키어
먹							ㄴ	티		아	먹을티아
먹							ㄴ	이		아	먹을라
먹							ㄴ	이		아	먹을래
먹							ㄴ	이		으라 ¹⁵⁾	먹으라
먹							ㄴ	이		어	먹저

14) 이것도 다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먹+어+ㄴ+이에'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 '먹으라, 먹저'는 필자가 더 넣은 것이다.

형태소 '-오, -ㄴ'과 안맺음씨끝의 호응

(위의 그림표는 이남덕(1982)이 작성한 것인데, 필자가 그 가운데서 일부만 가려 뽑은 것이다. 견해에 따라서는 다르게 분석되는 수도 있겠다. 그리고, '-ㄴ'을 씨끝으로 볼 수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 특히 2, 3, 4의 분석은 현평효(1974), 홍종림(1991) 등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6, 7, 8의 분석도 다른 점이 있다. 더 첨가해야 할 것은 '먹엄시크라라'¹⁶⁾ 따위에서 '-라-(회상법 씨끝)'의 자리는 위의 그림표에서는 8과 9 사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방언에서 시상의 안맺음씨끝은 윗 표에서는 2, 3, 4, 6, 7, 8의 칸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오, -ㄴ'과 호응하는 것은 6, 7에 있는 것으로 가정해 둔다.

3. '-오, -ㄴ'과 안맺음씨끝의 쓰임과 호응 양상

안맺음씨끝의 놓이는 자리는 줄기와 서법의 맺음씨끝(종결 어미) 사이가 된다. 그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안맺음씨끝이 올 수 있다. 그것들 중에 어느 하나나 둘이 '-오, -ㄴ'과 호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3.1. 안맺음씨끝의 쓰임

시상의 안맺음씨끝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음씨끝과도 결합하여 쓰이기도 하고, 맺음씨끝과도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겹쳐서 쓰이는 일이 있다. 이들의 결합을 보면, '줄기+서법+맺음씨끝, 줄기+서법+서법+맺음씨끝, 줄기+동작상+서법+맺음씨끝, 줄기+동작상+서법+서법+맺음씨끝' 따위가 된다.

'감시크라라'는 '가(줄기)+암시(동작상)+크(의도나 추측)+라(회상법)+라(서법씨끝)'로 형태 분석된다. 형태적으로는 이보다 단순한 결합도 있을 수 있지만, 높임의 안맺음씨끝까지 결합되어 더 복잡한 결합의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형태소들은 각각 의미, 기능을 지녀 문법적 구실을 하는 문법 요소인 것이다.

16) 이남덕, 앞 논문.에서는 '미완료+추정+회상'으로 복합 구조로 본다.

3.2. '-오, -ㄴ'과 안맺음씨끝의 호응 양상

방언의 시상의 안맺음씨끝들은 '앗-/엇-, -음-, -암-/엇-, -암시-/엄시-, -노-/누-, -안-/언-, -아시-/어시-, -더-, -크-, -고-(과), -ㄴ' 따위가 있다¹⁷⁾.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고찰될 것이다. 이들이 결합되는 자리는 비교적 일정하여 줄기에 가까이 결합하는 것이 있고, 맺음씨끝에 가까이 놓이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맺음씨끝도 놓이는 자리에 따라 최소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을 서법과 동작상으로 나누어 '-오, -ㄴ'과 호응하는 것을 살펴 본다. 물론, 이들은 따로 쓰이기도 하고, 같이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오, -ㄴ'이 결합될 수 있는 씨끝은 '-아/-어, -다, -어나, -어다, -저'라고 했다. 처음에만 이들이 결합하여 씨끝들과 호응하는 것을 보이고 나머지에서는 '-아/-어'에 결합하여 쓰이는 현상만 든다. 그것은 '-아/-어'에 결합된 '-오, -ㄴ'과 다른 씨끝에 결합된 '-오, -ㄴ'이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어다'가 결합할 수 있는 줄기는 '이동의 뜻'을 지닌 움직씨여야 하기 때문에 '가(움직임)'에는 결합될 수 없다. 그래서 '들-驟)'로 대체하였다.

3.2.1. 서법에서¹⁸⁾

가. 직설법

- 1) 가. 강 먹나 (가당 먹나 가그네 먹나, 가낭 먹나 들러당 먹나)
- 나. 강 먹는다 (가당 먹는다 가낭 먹는다 가나그네 먹는다 들러당 먹는다)
- 다. 강 먹네 (가당 먹네 가낭 먹네 들러당 먹네, 들러다그네 먹네)
- 라. 강 먹느니¹⁹⁾ (가당 먹느니 가낭 먹느니 들러당 먹느니)
- 마. 간 먹어네 (가단 먹어네 가다네 먹어네 가난 먹어네 들러당 먹어네)

17) 홍종림, "제주 방언의 상체제 검토,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김완진 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1991.

표준어 시간 관련 형태소는 '앗, 엇, 쟈, 더, 느, 울, 은' 따위인데, 방언과는 차이점이 드러난다.

18) 현평효, 앞 책, p.110.에서는 방언의 직설법 씨끝은 '-ㄴ다, -나, -느니, -네, -네, -(으)에, -아/-어, -ㄴ게, -네다, -니다, -우게 따위가 된다.

19) 고영근, 앞 책, p.159.에서는 원칙법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니'에는 원칙법과 하계체의 설명법의 기능을 겸하여 가지고 있다고 했다.

ㅂ. 간 먹고라 (가단 먹고라 가난 먹고라 가나네 먹고라 들러단 먹고라)

위의 ㄱ.-ㄴ.의 '먹나, 먹는다, 먹네, 먹느니' 따위는 풀이법으로 월을 끝내는 직설법이다.

그런데, 이들은 ㄱ.-ㄴ.은 '-오'과만 호용하고 있다. 그러면, 직설법 씨끝의 시상의 뜻을 보면,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뒤이다. 그러나, ㅁ.-ㅂ.은 '-ㄴ'과 호용하고 있다. 그런데, ㄱ.-ㄴ.과 ㅁ.-ㅂ.의 차이는 전자에는 직설법 씨끝만 있고, 후자에는 직설법 씨끝이나 풀이법 씨끝이 있고, 그 앞에 '-어-, -고-' 따위의 다른 형태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ㄱ.-ㄴ.에는 '-오'과만, ㅁ.-ㅂ.에는 '-ㄴ'과만 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ㅁ.은 회상법과 더불어 쓰인 것이고, ㅂ.은 확인법으로 쓰인 것이어서 '-ㄴ'과만 호용하고 있다. 이것은 직설법 씨끝과 '-어-, -고-'와 결합해서 얻은 시상의 뜻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즉, 말할이는 행위자가 이미 먹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들을이의 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말할이 자신이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것이다. ㄱ.-ㄴ.이 만일, '*간 먹나' 따위가 되면 이는 바르지 못한 결합으로, 잘못 쓰인 것이 되고 만다. ㅁ., ㅂ.도 마찬가지다. '*강 먹고라'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것은 '-오'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이거나, 동시이고, '-ㄴ'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거나 동시이기 때문에 이런 시상을 지닌 안맺음씨끝과 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의 연결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강'의 '-오'은 '먹-나'의 줄기 '먹-'과 씨끝 '-나' 사이에는 현재로선 아무런 형태소가 없다. 그리고, '간 먹어네'에서는 '간'의 '-ㄴ'과 '먹어네'의 '먹-'과 '-에' 사이에는 '-어- + -나-'이 형태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이런 차이에서 '-오'은 줄기에 직설법 씨끝만 있으면 호용하고, '-ㄴ'은 '-어- + -나-' 따위의 안맺음씨끝이 결합되어 뜻으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면 바른 결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ㄱ., ㄴ.에서도 형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 '-ㄴ + 아, -느 + 니²⁰⁾' 따위로 형태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ㄴ-,

20) 현경효, 앞 책, p.111.

-느-'를 얻어, 이를 직설법 씨끝으로 보는 것이다²¹⁾. 그렇다면, 직설법 씨끝 '-ㄴ-, -느-'에는 '-오'와 호용할 수 있는 시상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ㄴ-, -느-' 형태소의 시상의 뜻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이므로 '-오'와 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위의 현상들을 보면, '-오'의 호용은 줄기에 직설법 씨끝이 바로 결합 되든지 또, 그 사이에 다른 서법 형태소(-(으)크 따위)가 있어도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이면 호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ㄴ'은 줄기와 직설법 씨끝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없을 때는 호용하지 못했고, 반대로 어떤 형태소(-더 따위)가 있고, 그 형태소의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설 때만 호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줄기와 서법의 씨끝 사이에 놓이는 어떤 형태소가 어떻게 다른 형태소인가가 문제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시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와 호용하는 ㄱ, ㄴ, ㄷ에서 분석되는 '-ㄴ-, -느-' 따위와 ㅁ., ㅂ.의 '-ㄴ'과 호용하는 '-어+니-' 사이에는 '-어-, -고-'가 차이가 있다. 즉, ㄱ, ㄴ.에서의 '강'의 '-오'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리고, '먹나, 먹느니' 따위는 모두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뒤에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와 '-나, -느니, -네, -는다'는 서로 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ㄱ, ㄴ. 외에도 '본다, 잔다, 멩긴다' 따위도 직설법 씨끝이 분석되는데, '-오'과만 호용하는 점은 위와 같다. 그리고, 의문법에서도 '오는가, 먹는가, '는가' 따위에서도 마찬가지로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ㅁ.-ㅂ.의 '간'의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그리고, '먹어네, 먹고라'의 '-어네, -고라'들도 모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섬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여기에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어-, -고-'이다. 이것이 '-ㄴ'과 호용하는 형태소이다.

그런데, ㅁ.은 직설법 씨끝 '-나'가 있지만 앞에 '-어'가 있어서 '-ㄴ'과 호용하고, ㅂ.에는 풀이법 씨끝 '-다'의 이형태 '-라'가 있다. 그러나, 그 앞에 '-고'가 개입되어서 '-ㄴ'과 호용하고 있다.

21) 현평효, 앞 책, p.89에서는 직설법 씨끝은 /-ㄴ-, -느-, -니-, -느/으로 형태 분석하고, 이들을 변이형태로 본다.

이남덕, 앞 논문, p.43에서는 '느+ㄴ+ㅣ+ϕ, ㄴ+아, ㄴ+이+ϕ, 느/ㄴ+다'로 분석했다.

형태소 '-오, -ㄴ'과 안맺음씨끝의 호용

그래서 ㄱ, -ㄴ에서는 직설법 씨끝만 있어, 그 시상의 뜻이 발화시보다 뒤에 일어날 사건을 추정하거나 단정하여 말하는 것이 되므로, '-오'와 호용하는 것이 되겠고(풀이법 씨끝도 마찬가지다), ㅁ, -ㅂ의 '-어-, -고'는 직설법 씨끝이나, 풀이법 씨끝이 있다라도, 거기에 뜻을 더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사건을 인지하거나 회상하여 말하는 것이 되어, '-ㄴ'과 호용하게 된 것이다. 즉, '-어'는 앞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회상'의 뜻을 지닌 형태소다. '먹어네'의 쓰임은 말할이(화자)나 들을이(청자)가 모두 알고 있거나²²⁾, 말할이가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도 쓰인다.

그리고, ㅂ, -은 '-ㄴ'이 '-고'와 호용하고 있다. ㅂ, -은 '-고'는 1인칭 말할이가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방언형 '-고'는 특이한 기능을 하는 형태소로서 문헌어 1인칭 주체 표시 '-오-/우'와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²³⁾. 이것도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오'는 직설법 형태소 '-ㄴ-, -느' 따위가 즐기와 맺음씨끝 사이에 결합되었을 때 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ㄴ'은 즐기와 맺음씨끝 사이에 직설법 씨끝만 있을 때는 호용하지 못하고, '회상'이나, 1인칭 주체 표시의 형태소가 있을 때는 호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그런데, 직설법 씨끝의 앞에 동작상 '-암-, -암시'를 결합시켜 환경을 바꾸면,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에는 '-ㄴ'과만 호용한다.

2) ㄱ. 간 먹엄느니

ㄴ. 간 먹엄네

위의 ㄱ., ㄴ.에서 동작상 '-암'이 없는 직설법 씨끝의 상태에서는 '-오'와 호용했다. 그러나, '-암'이 결합되었을 때는 '-ㄴ'과만 호용하고 있다. 이것은 '-암'이 없을 때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늦지만, '-암'이 결합되었을 때의 '먹엄느니'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늦지는 않는 '동시나 진행'의 시상을 나타내고

22) 송영주, 앞 책, p. 53.

23) 홍종림, 앞 논문, p. 579,에서는 '-과'로 보고 원발화문의 상형태 '-어시'의 교체형으로 보고 있다.

24) 송영주, 앞 책, p. 31,에서는 우리말의 서술 구조 배열에서 어떠한 발화나 문장이든 '-느'나 '-더'가 개입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있다. '-ㄴ'은 앞에서의 지적처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거나 동시일 때까지는 호용한다. 그리고, '-ㅇ'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이거나 동시일 때 호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 직설법 씨끝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늦어서 '-ㅇ'과 호용했지만 '-암'이 결합되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ㅇ, -ㄴ'은 형태소와의 호용이 아니라 뜻으로의 호용이라 할 수도 있다. 특히, 동작상에 직설법의 결합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작상과 추측, 의도, 회상법의 결합에선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들은 동작상이 있든 없든 '-더-, -고-'는 '-ㄴ'과, '-크-, -리-'는 '-ㅇ'과 호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래에서도 밝혀진다.

3) ㄱ. 먹엉 가크라

ㄴ. 먹언 감서

ㄱ., ㄴ.은 풀이법 맺음씨끝에 이른바 의도법이나 추측법 '-(으)크-'와 동작상 '-암시-'가 결합된 것이다. 앞에서도 직설법 씨끝만 있을 때는 '-ㅇ'과만 호용하였다. 그런데, ㄱ.에는 '-크-'가 결합되었는데 '-ㅇ'과 호용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으)크-'도 '-ㅇ'과 호용하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ㅇ'과 호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ㄴ.은 '-암시-'가 결합되었다. 만일 '-암시-'가 없다면, '-ㅇ'과 호용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직설법에서는 동작상이 결합되면 '-ㅇ'에서 '-ㄴ'으로 바뀌 호용되나, 의도, 추측법은 늘 '-ㅇ'과, 회상법은 '-ㄴ'과 호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직설법 형태에 동작상이 결합된 것을 더 보면,

4) ㄱ. 먹엉 감신다

ㄴ. 먹엉 가신다

위의 견해대로라면 ㄱ., ㄴ.은 바르지 못한 결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바른 결합으로 쓰이고 있다. 이 때 '-ㄴ-'은 직설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추정'의 뜻을 지녀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복되는 행위에서 얻어진 추정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직설법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동작상과 의도, 회상법이 쓰인 것을 더 살펴 보면

- 5) 가. 먹엉 감시크라
 나. 먹언 감서라

위에서 보면, '-암-/암시-'가 쓰였지만 가.은 '-오'과, 나.은 '-니'과 호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암-' 따위에 의해서 '-오, -니'이 호용한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점이 있다. 만일, 가.에서 '먹언 감시크라'도 바른 결합으로 볼 지도 모른다. 이 때에는 주어의 인칭 제약도 다르고, '먹언'과 '감시-'의 분리성에 의해 다른 통어 구성으로 보아 둔다.

이상에서 나타난 현상을 요약하면, 직설법에서는 줄기에 동작상이 없이 직설법 씨끝(-니, -느-)이 바로 결합된 것은 '-오'과만, 그 사이에 동작상이 개입된 것은 '-니'과만 결합하고 있다. 그리고, '-더-, -고-' 따위의 서법의 안맺음 씨끝이 결합되었을 때는 '-니'과만, 의도, 추측법의 '-크-'가 개입되었을 때는 '-오'과만 호용하고 있다.

나. 회상법

- 6) 가. 간 먹어라
 나. 간 먹읍데다
 다. 간 먹데
 르. 간 먹언가

위에서는 높임법이 두루 섞여 쓰인 것이다. 그러나, 높임법과는 관계 없이 형태소들이 지닌 시상의 뜻에 따라, '-오, -니'이 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의 지적처럼 모두 '-니'과만 호용하고 있다. 가.에서는 '*강 먹어라'로 젊은층에서 시킴법으로 쓰이는 일이 있지만, 방언형으로는 다르다. '-어라'는 표준어에서는 명령법 씨끝이지만, 방언에서는 '-더-'에 대응하는 회상법 씨끝이다. 방언에서 명령법 씨끝은 '-(으)라, -거라'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은 회상법이다.

가.-르.에는 회상법 씨끝 '-어-/더-'가 쓰였다. '-어-/더-'는 사건시가 발화 시보다 앞선다. 그렇기 때문에 '-어'의 호용으로 '강'이 되지 않고 '간'이 된 것이다. 그러면, '-오, -니'은 회상법에서는 맺음씨끝과는 호용하지 않고 그 앞에 오는 '-어-/더-'와 호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런데, ‘-어/-더-’의 앞에 의도법 씨끝 ‘-크-’가 쓰였을 때는 다르다.

7) ㄱ. 강 먹크라라(가서 먹겠더라)

ㄴ. 강 먹크라고나(가서 먹겠더구나)

위의 형태 분석은 ‘먹-크-라라, 먹-크-라-고나’가 된다. 이들은 회상법 씨끝 ‘-더-’의 변이 형태 ‘-라-’가 쓰였다. 방언에서는 ‘-아/-어-’의 변이 형태로 ‘-라-’가 쓰이는 환경이 있다. 즉, ‘오(來)-, 이(지정사)-, -크(추측, 의도)-’의 뒤에는 주로 ‘-라-’가 쓰인다²⁵⁾. 위의 ‘-더-’의 변이형 ‘-라-’는 방언에서는 회상법 씨끝이기 때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간-’의 ‘-ㄴ-’과 호응해야 옳다. 그런데, 여기 ㄱ., ㄴ.에서는 ‘-오-’과만 호응하고 있다. 그것은 앞에 ‘-(으)크-’가 ‘-라-’의 앞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앞에서는 ‘-더-’만 있을 때는 ‘-ㄴ-’과 호응했었지만 여기에는 ‘-더-’의 앞에 ‘-크-’가 있어 환경이 다르다. ‘-크-’는 표준어 ‘-겠-’과 대응되는 것으로 방언에서는 추측법이나, 의도법 씨끝으로 쓰이는 것이다²⁶⁾. 이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건시가 발회시보다 늦은 시상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크-’를 서법의 맺음씨끝과의 결합에서는 ‘의도나 추정’의 안맺음씨끝으로 처리되나, 어원적으로는 ‘-ㄴ- 거’의 형태였다. 여기에서는 그냥 화석화한 ‘-크-’로 보고서 ‘-크-’와 ‘-더-’ 두 개의 서법의 씨끝이 쓰일 때 반드시 ‘-크-’가 앞에 결합되며, ‘-오-’과만 호응하는 것으로 보아 둔다.

여기에서는 ‘-오-, -ㄴ-’과 호응하는 두 개의 서법 안맺음씨끝이 앞 뒤에 있을 때는 줄기에 가깝게 놓이는 것에 호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크라-’의 위치는 ‘*-라크-’로는 바뀌어 쓰이는 일이 없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회상법 ‘-어/-더-’는 ‘-ㄴ-’과 호응하고, 그 앞에 ‘-(으)크-’의 형태가 쓰였을 때는 ‘-오-’과 호응한다고 할 수 있다.

25) ‘라’의 형태는 ‘-더-’의 변이형태로도, ‘-아/-어-’의 변이형태로, ‘-다’의 변이형태로도 다양하게 쓰인다.

26) 현평효, 앞 책 p.133에서는 ‘-크-, -ㄴ티-, -ㄴ디-, -ㄴ다-, -ㄴ타’ 따위를 의도법으로 보고 있다.

다. 추측법

- 8) 가. 강 먹으리어
- 나. 강 먹으랴
- 다. 강 먹어지카(먹어질카)
- 라. 강 먹으꼴(먹을꼴)
- 마. 강 먹을꼴²⁷⁾

방언에서는 추측법과 의도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방언이 갖는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이는 인칭 제약도 있다. 위의 가.이 1인칭 주어이면 의도법이 되고, 3인칭이면 추측법이 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방언에선 /-카-, -리-, -르-/이 추측법 씨끝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²⁹⁾. '-카-'는 앞에서도 다루어졌기에 '-리-/-'에 관해서만 살펴 본다. '-리-/-'은 '-카-'와 마찬가지로 '-오'과만 호용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줄기에 결합한 '-카-'는 사전시가 발화시보다 뒤이고, '-르 + 거'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가앙'의 '-앙'과 '-르'이 호용한다고 했는데 '-리-'도 '-르+'로 마찬가지 현상이 있다. 그리고, 가.의 '먹으리어'에서는 '-앙'이 '-리-'와 호용하고 있다. '-(으)리-'는 분간적 씨끝이다³⁰⁾. 나.은 '-(으)리-아'로 분석되는데, '-아'는 물음법 씨끝이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때문에 서법으로 쓰인 추측의 씨끝 (-리)과 '-오'이 호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의 '먹어지카'는 표준어 '먹어질까'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것의 형태 분석은 '먹+어+지+르+것+인가'이다. '먹어지-'에서 '-지'는 접사이다. 라.도 '-르 것'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르-'의 형태소를 얻을 수

27) 현평효, 앞 책, p.99,의 '오늘 밤 비 올꼴'에 대비시켜 작성한 것인데, 방언 형으로는 '먹을 꼴'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28) 현평효, 앞 책.
고영근, 앞 책, p.202,에서는 의도법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의항, 약속, 가 능 등은 주변적 용법으로 보여 추측법만 설정했다고 한다.

29) 현평효, 앞 책.
고영근, 앞 책, p.233에서는 '-겠-'과 '-(으)리-'는 Bloomfield의 말을 빌면, 'rival form'이라고 할 것, 이라고 했다. (Language, 1933: 394)

30) 최현배, 《우리 말본》, 정음사, 1986, p.160.

있는데, 이는 원래는 매김씨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방언에서는 ‘어지크’나, ‘-(으)크’의 형태는 많이 사용된다. ‘가지카, 꺾여지카’ 따위로 거의 제약없이 쓰이나 모두 ‘-오’과만 호용한다. 그런데, ‘-지’와 ‘-크’ 사이에는 ‘-리’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 ㅁ.에서는 ‘-리’이 분간 씨끝으로 추측법 씨끝으로 다루어진다³¹⁾.

이상에서 다루었던 바를 요약하면, 추측법엔 인칭 제약이 있으며, /-크-, -리-, -리-/의 형태소에는 늘 ‘-오’과만 호용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의도법

- 9) ㄱ. 강 먹키어
- ㄴ. 강 먹저
- ㄷ. 강 먹올다
- ㄹ. 강 먹올타
- ㅁ. 강 먹올리

의도법에도 앞에서 지적처럼 인칭 제약이 있다. ㄱ., ㄴ.은 1인칭, ㄷ.-ㅁ.은 2인칭이어야 한다.

위에서도 모두 ‘-오’과만 호용하고 있다. ㄱ.은 물론 ‘-오’과 ‘-크’가 호용하고 있지만, ㄴ.의 ‘먹저’는 이음씨끝으로도 쓰이고, 맺음씨끝으로도 쓰이는 것이다³²⁾. 그러나, 의도법으로 쓰였을 때는 ‘-ㅈ-+어’로 분석하여 ‘-ㅈ-’를 의도법 씨끝으로 보고 있다³³⁾.

ㄷ.-ㅁ.에서는 ‘-리’과 ‘-앙’이 호용하고 있다. 이것도 ㄱ.과 같은 현상이다. ‘먹-올-다, -타, -리’ 따위에는 원시 추상 명사가 화합되어 있다. 이 때의 ‘-리’은 안맺음씨끝이 아니라 매김씨끝(관형사형)이다. 의도법 씨끝으로 화석화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들도 모두 ‘-오’과 호용하는 것이다.

3. 2. 2. 동작상에서

현평효(1974)에서 방언에는 시상적인 요소를 지닌 독특한 동작상을 설정하

31) 고영근, 앞 책, p.162.

32) 필자, 앞 논문.

33) 현평효, 앞 책, p.102.

고, 그 형태소를 '-앗-, -암-, -암시-, -아시-'로 보고 있다³⁴⁾. 이들의 결합은 방언의 독특한 기능을 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꺾임법(청유형), 시킴법(명령형) 씨끝의 앞에도 결합될 수 있고, 그림씨를 동작화시키든가 한다(덤다> 더웁저)³⁵⁾. 이러므로, 표준어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서, 방언의 특징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동작상의 형태소가 줄기에서 가장 가까이 결합되므로 그 뒤에 결합되는 서법의 씨끝들과 맺음씨끝과의 결합에 의한 '-오, -ㄴ'과의 호응을 살핀다.

가. 미완료상

- 10) ㄱ. 간 먹엄저. (풀이)
- ㄴ. 간 먹엄서? (물음)
- ㄷ. 간 먹엄고나. (느낌)
- ㄹ. 강 먹엄자³⁶⁾. (시킴)
- ㅁ. 강 먹엄게. (꺾임)

방언에서는 '-암-/암시-'는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형태소인데, 위에서는 줄기와 맺음씨끝 사이에 결합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시킴, 꺾임에도 결합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표준어에서는 이 범주에는 어떤 시상의 안맺음씨끝도 결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동작상의 결합은 서법, 높임법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기에 복잡함이 있다. 그리고, 동작상 '-암'은 하나의 안맺음 씨끝에 지나지 않지만, 표준어로의 대응 형태는 하나의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가고 있다, 가고 있거라'로 통사론적 구성으로 대응된다. 위의 '-암-/엄-'이 결합된 말의 관계는 '가고 있거라'에서 보면, 앞에는 본래 붙이씨가 되고 뒤는 도움 붙이씨가 된다. 결합의 뜻은 '동작의 계속³⁷⁾'을 나

34) 홍종립, 앞 논문,에서 '음, 암/-엄, 암시/엄시, 노/누'따위를 제1류로 분류하고 '어간'의 뜻을 실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며, 이들 암, 암시(안/언, 아시/어시 포함)는 배태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5) 현평효, 앞 책, p. 51.

36) 현평효, 앞 책, pp. 129~130,에서는 시킴법 씨끝을 ㄹ라체 '-라', ㅁ여체 '-게, -자, -꺾, -심', 홑서체 '-ㅁ서'를 들고 있다.

37) 현평효(1974), 앞 책.

타낸다. 표준어에는 결합되지 않는 ‘-암-, -암시-’가 방언에는 있기 때문에 동작상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는 ㄷ.을 제외하고는 모두 ‘-엄-/엄시-’을 빼어버려도 쓰일 수 있다³⁸⁾.

그 때는 맺음씨끝만 남아, 이 때는 늘 ‘-ㅇ’과만 호응한다. 이 점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다.

그런데, 동작상 씨끝이 ㄱ., ㄴ.에 결합되자 ‘-ㅇ’이 ‘-ㄴ’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ㄹ., ㅁ.에는 ‘-암-’이 있거나 없거나 늘 ‘-ㅇ’과만 호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시킴, 꺾임법 씨끝에는 ‘-암-/암시-’가 결합될 수는 있지만, 형태소 결합에 따른 문법 범주가 새로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킴, 꺾임법 씨끝은 어떤 시상의 안맺음씨끝이 쓰이더라도 ‘-ㅇ’라만 호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씨끝에는 ‘-더-, -(으)크-’ 따위의 시상의 씨끝은 결합되지도 않는다. 이 시킴, 꺾임법 씨끝의 시상은 늘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이어야 하는 것을 특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ㅇ, -ㄴ’의 호응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즉, ‘-암-/암시-’도 사건시와 발화시라는 점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ㄱ.-ㄷ.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는 늦지는 않고 앞서거나 동시이다. 그래서, 이것을 ‘동작의 계속’이나, ‘진행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런데, ㄹ.-ㅁ.의 시킴, 꺾임법에 쓰인 ‘-암-/암시-’는 아무래도 사건시가 발화시보다는 뒤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ㅇ’과 호응하고 있다. ㄱ.-ㄷ.은 바른 결합이고, ㄹ.-ㅁ.도 바른 결합이다. 그리고, 맺음씨끝만 있을 때는 이제까지 지적해 온 바와 같이 ‘-ㅇ’과 호응하나, ‘-암-/암시-’가 결합했을 때는 ‘-ㄴ’과 호응하는 것으로 보아 왔다. 그래서, ‘-암-/암시- + 맺음씨끝’은 형태소 통합에서 새로운 문법 범주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시킴, 꺾임법 씨끝에서는 그 규칙 적용이 어렵게 되었다. 이 경우는 일단 예외로 처리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꺾임법과 시킴법은 서법 맺음씨끝 자체가 ‘-ㅇ’과만 호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ㅇ, -ㄴ’과 호응하는 형태소를 달리 찾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8) ‘-교나’는 그림씨 줄기에는 바로 결합되기도 하나, 움직임 줄기에는 늘 ‘-암/-암시-, -앗-, -더-’가 결합되교서야 쓰이는 씨끝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

나. 완료상

- 11) 가. 간 먹었저.
- 나. 간 먹었고.
- 다. 간 먹었고나.
- 라. 강 먹었자.
- 마. 강 먹었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동작상 씨끝은 서법 맺음씨끝의 형태에 따라,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가., 나.의 '-저, -고'는 방언에서는 다양하게 쓰이는 형태이나, 여기에서는 풀이법과, 물음법 씨끝으로 쓰인 것으로 본다. 위의 가.-마.에서 다.을 제외하고는 동작상 '-었'을 빼버려도 쓰일 수 있는데, 그때는 라., 마.은 그대로 되지만, 가., 나.의 '가안'은 '가앙'으로 바뀌어야 바른 결합이 된다.

위의 '가-다'에서는 완료상 '-았'과 맺음씨끝이 결합하여 '가안'의 '-안'과 호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작상 '-았'과 서법의 맺음씨끝이 결합하여 뜻으로 사전시가 발화시보다 앞서게 되어 호응했다고 할 수도 있다. 라., 마.은 실제 발화에서는 어색한 듯하지만 쓰인다. 주로, '강 먹어시라, 강 먹어 두어라'로 나타난다. 그러나, 라., 마.에는 맺음씨끝에 동작상 '-았'이 결합되었어도 '-오'과 호응되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예외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았/-었'이 뒤에 결합되는 시상의 형태소는 '-더'이다.

- 12) 가. 간 먹었더라
- 나. 간 먹었던가
- 다. 간 먹었더고나
- 라. *강 먹었더자
- 마. *강 먹었더게

왼쪽에서는 가. -다.에는 '-더'가 결합되어 쓰일 수 있지만, 라., 마.과는 결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라., -마. 꺾임, 시킴법 씨끝에는 동작상의 '-암/-암시-, -았/-아시-'는 결합되지만 서법의 '-더-, -(으)크-'따위는

결합되지 않는다. ㄱ, ㄷ은 발화시보다 사전시가 앞서기 때문에 ‘-ㄴ’과 호응하는 것이다. 서법의 ‘-더-, -(으)크’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전시가 전후로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 미완료 존속상

- 13) ㄱ. 간 먹엄서
- ㄴ. 간 먹엄신가
- ㄷ. *간 먹엄시고나
- ㄹ. 강 먹엄시라
- ㅁ. 강 먹엄시계

미완료 존속상은 ‘-암시-/엄시’로 보고 있다. ㄷ에서처럼 느낌법 씨끝 ‘-(으)라’ 앞에 동작상 ‘-암시’가 결합된 것이다. ㄱ, ㄴ. ‘가안’의 ‘-안’과 ‘-암시’가 호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ㄹ의 시킴법, ㅁ의 꺾임법 씨끝에 ‘-앙’이 호응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

- 14) ㄱ. 간 먹엄선계. (먹엄던계)
- ㄴ. 간 먹엄선가. (먹엄던가)
- ㄷ. 간 먹엄서고나. (먹엄더고나)
- ㄹ. *강 먹엄서라.
- ㅁ. 강 먹엄서계

위의 ㄱ, ㄹ.을 형태로 분석하면, ‘먹-엄시-어-ㄴ-계, -가, -고나, -라’, 그리고 ㅁ.은 ‘먹-엄시-어-계’가 된다. ㄱ.과 ㄴ.에는 ‘엄시’에 ‘어+ㄴ계’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는 방언형 회상법 씨끝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동작상 씨끝과 ‘-ㅇ, -ㄴ’이 호응이 아니라, ‘-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ㄹ.은 바르지 못한 결합이다. 시킴법 씨끝 ‘-(으)라’에 동작상 ‘-암시-, -아시-’는 결합될 수 있지만 서법의 회상법 씨끝 ‘-더’와는 호응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ㅁ.은 ‘ㅎ계체’ 시킴법 씨끝 ‘-어’가 쓰인 것이다. 그리고, ‘-계’는 이른바 첨사이다. 방언에서는 ‘-계’가 덧붙여 ‘강조’나 ‘확인’ 그리고, 문법적

기능 따위의 의미 기능을 하는 일이 있다. 여기에 쓰인 '게'는 없어도 뜻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미완료 존속상 '-암시-/-'엄시-'에는 '의도나 추정'의 '-ㄱ-'가 결합될 수 있다.

- 15) 가. 강 먹엄시크라
- 나. 강 먹엄시큰가
- 다. !강 먹엄시크라

가.은 주어 인칭 제약이 있다. 2, 3인칭일 때는 어색한 결합이다. 만일, 3인칭이면 '간 먹엄시크라'로 바뀌어 통어 구성이 다르고, 뜻도 다르다. 이 때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늦지는 않다. 그리고, 말할이가 전체적인 사건을 추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ㄴ'과 '-ㄱ-'의 호용이 아니다. 그리고, 꼭 순차적 구성도 아니고, 종속적 구성일 수도 있다. 나.도 2인칭 주어일 때 바른 결합이다. 3인칭일 때는 어색하다. 역시 3인칭일 때는 '강'이 '간'으로 바뀌어야 하고,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위의 가., 나.은 주어 인칭 제약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ㄱ-'가 결합할 때는 '-오'과 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암시'와 서법의 씨끝 사이에는 '-ㄱ-' 외에도 '-리-'가 더 결합될 수 있는데, 이것은 '-ㄱ-'보다도 서법이나 인칭에 제약이 더 심하기는 하나, '-오'과 호용하는 점은 '-ㄱ-'와 같다. 그리고, '-ㄱ-'의 뒤에는 '-라'가 더 결합될 수 있는데, '-리-'의 뒤에는 그렇지 못하여 맺음씨끝만 결합된다. 그렇지만 '-라'의 앞에 오는 '-ㄱ-'과 '-오'이 호용하는 점은 앞에서와 같다. 그런데, 시킴법 씨끝 '-으라' 앞에는 '-ㄱ-'도 결합되지 못한다. 결합시키면 다른 서법이 된다.

라. 완료 존속상

- 16) 가. 간 먹어서
- 나. 간 먹어서냐
- 다. *간 먹어서고나
- 라. 강 먹어서라
- 마. 강 먹어서게

위에서도 동작상 형태소는 '-아시-/어시-'가 된다³⁹⁾. 그런데, ㄱ.-ㄷ.에서는 모두 분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ㄱ.은 '먹-어시-어'로 보고 '어'를 'ㅎ계체 맺음씨끝'으로 보아야 하고, ㄴ.은 '먹-어시-냐'로 보아야 하고, ㄷ.은 실제 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법 씨끝 '-고나'에는 미완료 존속상 '-암시-'와 완료 존속상 '-아시-'는 결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ㄹ.은 시킴법, ㅁ.은 피임법 씨끝이다. 그런데도 동작상 '-아시-'와 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상과는 '-오, -ㄴ'이 호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예외로 처리되어야 한다.

완료 존속상 '-아시-/어시-'의 뒤에도 '-더-'나 '-크-'가 더 결합될 수 있다.

- 17) ㄱ. 간 먹어서라.
- ㄴ. 간 먹어선가.
- ㄷ. 간 먹어서고나.
- ㄹ. !강 먹어서라.
- ㅁ. !강 먹어서게

위에는 회상법 씨끝 '-더-'의 대응형 '어-'가 동작상에 결합된 것이다. ㄱ.-ㄷ.은 바른 결합이지만, ㄹ., ㅁ은 시킴법이나, 피임법으로는 바르지 못한 결합이다. 시킴법, 피임법 씨끝에는 동작상 '-암시-, -아시-'만 있을 때는 '-오'과 호용이 되나, 회상법의 씨끝 '-더-', 의도법의 씨끝 '-크-'가 더 결합되었을 때는 바르지 못한 결합이 된다. 표준어에서는 시제의 형태소가 시킴법 씨끝에는 결합되지 않는 점과 일치한다.

'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ㄴ'과만 호용하고 있음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아시-'의 뒤에 다시 '-크-'를 결합시켜 보자.

- 18) ㄱ. 강 먹어서키여
- ㄴ. 강 먹어시카
- ㄷ. *강 먹어시크고나
- ㄹ. !강 먹어시크라

39) 홍종림, 앞 논문, p. 569, 에서 '-아시-/어시'는 의문문에서는 3인칭 주어, '-안/-언'은 2인칭 주어로 제약된다고 했다.

ㄹ. *강 먹어시크게

위에서는 ㄱ, -ㄴ. 만 바른 결합이다. 이 때에도 앞에서는 동작상'-아시-'만 있을 때는 '-ㄴ, -오'이 다 호용할 수 있었지만, '-크-'가 결합하고 나서는 '-오'만 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킴법 씨끝에는 '-크-'가 결합되면 시킴법, 느낌법, 꺾임법이 되지 않는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마. 과거 완료상

'어나시-'형을 과거 완료상으로 보고 있다⁴⁰⁾.

- 19) ㄱ. 간 먹어나서
- ㄴ. 간 먹어나시냐
- ㄷ. *강 먹어나시라
- ㄹ. *강 먹어나시게

위에서 보면, '어나시-'가 동작상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서법과 결합도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리고, 다른 시상의 형태소들과도 결합이 이루어지는 점에서도 동작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을 형태 분석하면, '먹+어나시+어', '먹+어나시+ㄴ+이+아'로 되는 점도 그렇다⁴¹⁾. 그러나, ㄱ., ㄴ.에서는 '-ㄴ'과, 호용하고 있으나, ㄷ., ㄹ.에서는 '-오'과 호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는 '-암시-, -어시-'가 시킴법 씨끝의 앞에 결합되었지만, '어나시-'에는 결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면, '어나-'에서는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 ㄱ. 간 먹어났저
- ㄴ. 간 먹어나서라
- ㄷ. 강 먹어나키어
- ㄹ. 강 먹어나라
- ㅁ. 강 먹어나게

40) 이남덕, 앞 논문, p. 31.

41) 이남덕, 앞 논문, pp. 26~27.

위에 ㄴ.에는 '-어'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ㄴ'과, ㄷ.은 '-ㄱ'이 있어 '-오'과, ㄹ.에는 시킴에 '-어나'가 있어 호응하고, ㅁ.에는 꺾임이어서 '-오'과 호응하고 있어서 바른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동작상과 다른 점은 '-어나'에 시킴, 꺾임이 결합되는 점이다.

3.2.3. 기 타

여기에서는 물음법에만 쓰이는 '-(으)ㄹ'과 '-언'이 호응하는 현상을 살펴본다.

- 21) ㄱ. 강 먹을디아
 ㄴ. 간 먹언디아

위의 ㄱ., ㄴ.은 모두 2인칭 주어로 제약되는 것이다. 이들은 '-오, -ㄴ'의 대립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교체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음도 대립을 더 분명히 해준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시상의 대립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태소 분석이 '-을'은 서법의 자리에, '-언'은 동작상의 자리에 있어 '-을'과 '-언'은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 '-ㄹ-, -언'의 뒤에 오는 '-디'는 원시 추상명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 22) ㄱ. 강 먹어날디아, 먹엄실디아, 먹어실디아
 ㄴ. 간 먹어난디아, 먹엄신디아, 먹어신디아

위에서 보면, '-을'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은'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이 관계는 접어 둔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를 위하여 그림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즉, 방언의 맺음법을 세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보았다. 즉, 시상의 안맺음씨끝을 동작상과 서법, 그리고, 맺음씨끝으로 본 것이다⁴²⁾. 그렇기 때문에 형태

42) 이남덕, 앞 논문, p.13에서는 2,3,4는 Aspect, 6,7,8은 Mood를 나타낸다고 했다.

형태소 '-ㅇ, -ㄴ'과 안맺음씨끝의 호응

분석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그림표는 나름대로 '-ㅇ, -ㄴ'과 호응하는 형태소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ㅇ, -ㄴ'과 호응하는 안맺음씨끝이 특정 자리가 있다는 가정에 의해서다. 바로 동작상과 맺음씨끝 사이의 서법의 자리이다. 여기가 '-ㅇ, -ㄴ'과 호응하는 안맺음씨끝의 자리라고 가정해 둔다. 높임법(침사 포함)의 자리는 서법이나 씨끝의 자리에 같이 두었다. 다만, 서법의 자리가 빈 곳(시킴, 껴임)은 '-ㅇ'형태라도 채워야 할 것이다.

평서법

호응	하 라 체				하 여 체				흙 서 체			
	줄기	동작상	서법	씨끝	줄기	동작상	서법	씨끝	줄기	동작상	서법	씨끝
강	먹		키	여	먹		크	라	먹		크우	다
강	먹	엄시	키	여	먹	엄시	크	라	먹	엄시	크우	다
강	먹		ㄴ	아	먹		ㅈ	어	먹		크우	다
강	먹		크라	라	먹		크	이어	먹		크우	다
강	먹		ㅈ	어								
간	먹	엇		저	먹	엇		고	먹	엇	우	다
간	먹	어시	ㄴ이	에	먹	어시	ㄴ	계	먹	엇	우	계
간	먹	엄시	어	라	먹	엄시	어ㄴ	계	먹	엄시	버더	이다
간	먹	엄		저	먹	엄		취	먹		언	마썸
간	먹	엇		저	먹	엇		취	먹	엇		취마썸
간	먹		고 ⁴³⁾	라								
간	먹		더	라	먹		더ㄴ	계				

43) '-노/-누, -고/-과'는 다른 상형태의 뒤에 쓰이는 점으로 보아 서법의 자리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문법

호응	ㄱ 라 체				ㄱ 여 체				흙 서 체			
	줄기	동작상	서법	씨끝	줄기	동작상	서법	씨끝	줄기	동작상	서법	씨끝
강	멕		올디	아					멕		크우	가
강	멕	어시	르	레	멕	어시	크	라	멕	어시	크우	가
강	멕		느	냐	멕		느	가	멕		읍	네까
강	멕		크	냐	멕		크	아	멕		우	아미썸
간	멕	엄시	니	∅	멕	엄시		어	멕	엄시	우	가
간	멕		언디	아					멕		어느	미썸
간	멕		더느	이아	멕		더느	가	멕		읍디	가

명령법

호응	ㄱ 라 체				ㄱ 여 체				흙 서 체			
	줄기	동작상	서법	씨끝	줄기	동작상	서법	씨끝	줄기	동작상	서법	씨끝
강	멕			으라	멕			주	멕		읍	서
강	멕	엄시		라	멕	엄시		어	멕	엄시	비	서
강	멕	어시		라	멕	어시		어	멕	어시	비	서

청유법

호응	ㄱ 라 체				ㄱ 여 체				흙 서 체			
	줄기	동작상	서법	씨끝	줄기	동작상	서법	씨끝	줄기	동작상	서법	씨끝
강	멕	엄		자	멕	엄		취	멕	엄시	비	취
강	멕	엄시		게	멕	엄시		주	멕	엄시	비	주
강	멕			게	멕			취	멕		읍	주

4. 맺 음 말

이제까지 ‘-ㅇ, -ㄴ’이 동작상, 서법, 맺음씨끝들 중 어느 것과 호응하는 지를 밝히기 위하여 나름대로 요인으로 보이는 것을 올려 보았다. 여기에서 형태소 분석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ㅇ, -ㄴ’과의 호응을 밝히는 데는 어느 정도 규칙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들

형태소 '-오, -ㄴ'과 안맺음씨끝의 호용

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줄기에 바로 맺음씨끝만 결합된 것(시킴, 꺾임)과

둘째는 줄기에 서법의 씨끝과 맺음씨끝이 결합된 것과

셋째는 줄기에 서법+서법+맺음씨끝이 결합된 것과

넷째는 동작상과 서법의 씨끝과 맺음씨끝이 결합된 것과

다섯째는 줄기에 동작상 씨끝과 서법+서법, 그리고 맺음씨끝으로 된 것 따위들이다.

이들은 위와 같은 환경의 차이가 있어서 '-오, -ㄴ' 어느 하나와만 호용하게 된다. 이들을 규칙화시키면 아래와 같다.

첫째의 줄기에 맺음씨끝(종결어미)이 바로 결합된 것(시킴, 꺾임)은 앞에 어떤 동작상이 결합되더라도 '-오'과만 호용한다. 그리고, 이들의 앞에는 어떤 서법의 안맺음씨끝도 결합되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 -ㄴ'과의 호용에 대한 체계화에서는 예외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둘째, 줄기와 서법의 씨끝이 결합된 것은, 직설법, 추측법, 의도법, 그리고, 회상법이 있다. 줄기에 직설법, 의도법, 추측법 씨끝이 결합된 것은 늘 '-오'과만 호용하고, 줄기에 회상법 씨끝이 결합된 것은 '-ㄴ'과만 호용한다. 위의 그림표에서 보면, 서법의 자리가 비었거나, 직설법, 추측, 의도법 씨끝만 있는 것은 '-오'과만 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줄기에 서법+서법+맺음씨끝으로 된 것은 '서법+서법'에서 앞에 어떤 서법의 안맺음씨끝이 놓였느냐에 따라 '-오, -ㄴ'과의 호용이 결정된다. 즉, 추측이나, 의도법이 직설법이나, 회상법보다 앞에 놓이는데 이 때는 늘 '-오'과만 호용한다. 그리고, 회상법이 직설법보다 앞에 놓이는데 이 때도 '-ㄴ'과만 호용한다. 보기를 들면, '먹크라라, 먹큰가'에서는 '-오'과만, '먹던가' 따위에서는 '-ㄴ'과만 호용한다.

넷째, 동작상과 서법의 씨끝이 결합되는 것은 서법의 유형에 따라 '-오, -ㄴ'이 선택 호용된다. 직설, 의도, 추측법 씨끝이 동작상에 결합된 것은 늘 '-오'과만 호용하고, 회상법, 확인법 씨끝과 결합된 것은 늘 '-ㄴ'과만 호용한다.

다섯째, 동작상과 서법+서법+맺음씨끝이 결합된 것은 늘 '-오'과만 호용한다. '먹엄시크라라'의 형태에서 늘 '-크'가 앞에 쓰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면, '-오, -ㄴ'의 호응은 주로 서법과의 호응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형태소들의 결합에 의해서 새로 형성된 문법 범주와의 호응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시가 뒤이면, '-오'과, 사건시가 앞이면 '-ㄴ'과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방언의 '-오, -ㄴ'의 호응은 독특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정희(1981), 제주도 방언의 시상 연구 -접속 접미사 -단/-당, -안/-앙-을 중심으로, 이화 어문논집 제2집, 이화 어문학회.
- (1987), 제주도 방언의 접속어미와 동작상어미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심약 이승녕 선생 8순 기념호, 국어학 16, 국어학회.
- 고영근(1981), 중세 국어의 시상과 서법, 탐출판사.
- (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 출판부.
- 고영진(1984),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 연구, 연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재일(1985), 국어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김문웅(1982), '-다가'류의 문법적 범주, 한글 제 176호, 한글학회.
- 김석득(1986), 도움 풀이씨의 형태.통어적 차원, 말 제11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 김영돈(1957), 제주도 방언의 어미 활용(2), 한글 제121호, 한글학회.
- 김지홍(1982), 제주도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 정신 문화원 한국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수(1987), 국어 접속 조사와 어미 연구, 탐출판사.
- 김찬균(1990), 우리말 시제와 상의 연구, 태학사.
- 리이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 서정수(1978), '르것'에 관하여, - '겠'과 대비를 중심으로-, 국어학 6, 국어학회
- (1981), 국어의 용언 어미 '-어(서)', 국어 자료(논문)집, 형태론 제2집, 대제각.

형태소 '-오, -ㄴ'과 안맺음씨끝의 호응

- (1990), 국어 문법의 연구 1, 한국 문화사.
- 서태룡(1988), 국어 활용 어미의 형태와 의미, 탐출판사.
- 성낙수(1982), 제주도 방언의 접속사 [nan], [an] 연구, 한국학 연구, 제1집.
- (1984),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연구, 정음사.
- 송상조(1992), 제주도 방언 '-오, -ㄴ'의 형태소에 관한 고찰, 동아 어문논집 제2호, 동아 어문학회.
- (1993-1), 형태소 '-오, -ㄴ'과 이음씨끝의 호응, 한외 제6집, 제주도 중등 국어교육연구회.
- 송영주(1991), 발화의 시간 의미 연구, 한신 문화사.
- 양인석(1972), 한국어의 접속화, 어학연구 8권 2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 유목상(1986), 연결 서술 어미 연구, 집문당.
- 이남덕(1982), 제주 방언의 동사 종결어미 변화에 나타난 시상 체제에 대하여, 한국 문화원논총 제40집, 이화여자대학교.
- 이남순(1981), 현대 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6, 국어연구회.
- (1987), '에', '에서'와 '-어 있(다)', '-고 있(다)' 국어학 16, 국어학회.
- 이승녕(1957),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탐출판사.
-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 문화사.
- 임홍빈(1980), '-겠-'과 대상성, 한글 제 170호, 한글학회.
- 장경희(1985), 현대 국어 양태 범주 연구, 탐출판사.
- 정인승(1956), '다그다'와 '다가'가 큰사전에 어찌 쓰였나?, 한글 제119호.
- 조오현(1991), 국어 이유 구문 연구, 한신 문화사.
- 최재희(1991), 국어 접속문 구성 연구, 탐출판사.
- 최현배(1986), 우리말본, 정음 문화사.
- 허 용(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현용준(1956), 제주도 방언에서의 '으'고, 국문학보 제1집, 제주대, 국문학과.

- (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신구 문화사.
- 현명효(1974),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제주도 방언의 연구(논고
편) 이우 출판사.
- 홍중립(1986), 제주 방언의 아스펙트 형태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8, 국어국
문학회.
- (1991), 제주방언의 상체제 검토,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
사.
- 황희영(1978), 한국 관용어 연구, 성곡논총 제9집.